보 도 설 명 자 료
('14. 9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, 중앙행정기관 중 사이버위기 대응 수준 "최악"
('14.9.1, news1)

---

1. 기사내용

□ **추미애 의원**은 산업부가 '13년도 국정원 정보보안 실태평가에서 **인적보안 및 사이버위기 관리**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

o 용역직원의 허가받지 않는 USB 등의 접속기록이 존재

o 위장해킹메일 신고율이 50%가 안 되고 초동 조치율이 0%

o 업무망과 인터넷망간의 자료전송을 무방비로 허용하여 악성코드 유입에 취약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

□ 동 정보보안 실태평가는 **'13년도 평가결과**로 산업부는 국정원의 평가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**조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**

o 용역직원은 용역관련 자료를 **부내 웹 디스크에만 보관**하도록 하였으며, **USB포트는 봉인하여 운영 중**('14. 1)

* 매월 용역직원 보관자료 유무를 점검 중

o 해킹메일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에 훈련용 메일시스템을 구축('14. 5)하여 **정기적으로 훈련 실시**(분기별)

* 직원 정보보안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킹메일 훈련시 감염자에 대해 직원성과 평가(건당 -0.5점 감점)에 반영

o 자료전송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해 로그기록 보관(6개월), 전송자료보관(3개월) 등 **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따라 운영**('14. 2)

* 망간 자료전송시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시스템 개선 중(14.10월 완료 예정)

□ 산업부는 국정원의 정보보안 평가시 지적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, **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해 APT공격대응 시스템 구축**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 김미애 과장(044-203-5550)
김용완 사무관(044-203-5551)